

## “ 성숙한 신자의 기도 ”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전인격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한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받을 곳이 달리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일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 금식, 철야, 장기간 때를 쓰는 아이처럼 큰소리로 외치며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시행한다.

그러나 "계약의 신" "능력의 신"이신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분만 "의지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다. 성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을 대적, 불신, 불순종, 불충하는 사탄, 마귀 즉 붉은 용, 두 짐승으로 묘사된 거짓의 영이 우리의 원수다. 그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원수의 개가를 듣는 일은 성도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수치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소자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도록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신앙을 가진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성도의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도록 하는 것이 '죄의식'이다. 고로 성도는 소시의 죄와 허물의 사유를 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방치한 채 문제의 해결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유의 근거는 자신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성, 자비로 즉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못 다한 성도나 공동체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짓눌림을 받을 것이 라 했으나 못 다한 사명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버리지 않고, 절망과 저주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은혜 입은 성도가 성경에서 찾아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과 깊은 신뢰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뜻을 바르게 보고 믿고 구해야 한다. '신실하시고' '구원' '공홀과 인자' '죄는 기억치 않으시고, 죄인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성실, 정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은 앙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홀과 의'가 만날 때 즉 '여호와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하나님은 공홀을 베푸시면서 어떻게 의를 이루시는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하나님의 공홀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의인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고 있는 성도는 다시 기도로 이어진다.

-한국장로신문 2018년 2월 3일 발췌-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오늘 1, 2, 3부 예배 중에 2023년 섬김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모든 2023년도 섬김위원들은 1월 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교구 총회가 있습니다. 교구일꾼들(교구장, 부교구장, 간사)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찬양대의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성탄절 감사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때에 꼭 참석하시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돌계단 사용 중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 동안 2층 분당 입구 현관문 사용을 중지합니다. 교회 오시는 성도들은 1층 정문과 한티공원 쪽 후문 출입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211\\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211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이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허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영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장로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중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a href="http://seoulchurch.or.kr/">http://seoulchurch.or.kr/</a>

##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

### ■ 마태복음 1:1-16

예수님의 족보는 큰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전기 형식을 지닌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을 따라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영지주의 이단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가현설을 주장한 것에 반해 예수님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족보부터 시작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근본적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족보에 나타난 복음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그의 혈통과 여호와 신앙을 계승한 참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명칭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어가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자결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와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 역사 현장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자기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 2. 생명의 축복을 주시다

창 5장에는 옛 조상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죽고 죽고 죽고'로 이어지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이것은 탄생의 책이다'로 시작하여 '낳고 낳고 낳고'로 이어지면서 죽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복음서의 내용 역시 질병, 가난, 소외 등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당시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16회, 영생이라는 단어가 19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의 필요로움이 있을 때 인간다움이 가능하고 평화와 안식이 깃들게 되고 인류 사회 전체에도 새롭고 창조적인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낳고'로 이어지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 3. 구원은 누구에게나

족보의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족보에 특별하게 여성 5명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축복에 여성들이 결코 배제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여성들이 중추적으로 사용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성경이 기록된 1세기의 세계는 모든 것이 차별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노예들과 자유시민의 차이가 극명했고 지식인들과 문맹자들을 명확하게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별했고 로마인들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동등합니다. 영생 얻는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고 오직 믿음 하나만 요청됩니다.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구원역사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족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족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줍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안용근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김익환 목사	김익환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0:2-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찬 송 Hymn .....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7(구주강림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10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1:1-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2023년 섬김위원 임명식 ..... 당 회 장  
 설 교 Sermon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284(206)...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성탄축하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안용근,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사 55:6-7 ..... 인 도 자  
 찬 송 ..... 214(349) ..... 다 함 께  
 기 도 ..... 이강인 장로  
 찬 송 ..... 216(356) ..... 다 함 께  
 성 경 ..... 롬 6:3-5 ..... 인 도 자  
 세례식 ..... 손달익 목사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세례 신앙” ..... 설 교 자  
 특별찬양 ..... 가브리엘찬양대  
 \* 찬 송 ..... 94(102)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I부: 전광환 권사 II부: 전희정 권사  
 성 경 ..... 삼하 15:13-3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김익환, 조동수 목사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설 교 ..... 전재홍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장희원	윤주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마 1:16)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홀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소식

### ☛ 모임

1. 마리아전도회 월례회 겸 정기총회 / 11일(주) 오후 12시 10분 802호
2. 교구 총회 / 11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3. 가브리엘찬양대 절기 찬양 연습 / 11일(주) 3부 예배 후 본당
4. 사라전도회 속회 / 11일(주) 3부 예배 후 602호

### ☛ 알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형준9	1교구	고등부	김예지9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2. 금일 세례식 실시 - 12월 세례(세례, 입교, 유아세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 결 혼

1. 황태인 군(황성구 장로, 안선원 권사의 장남)과 최나래 양(3교구 최근보 집사, 김은희 권사의 장녀) / 12월17일(토) 오후 12시 서울교회 본당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440명	405명	1,845명	382명	1,718명



##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지식이 결여된 자 또는 천박한 신분을 가진 자를 말 씀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자라고 가르쳐 주셨다. 가난한 자 는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 음이 부요한 자는 자기 외에 도취된 자요, 교만하여 다른 것을 수용할 만한 여유가 없는 자이므로 그는 아무것도 구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 치함과 무능력을 시인하고 마치 영적으로 파산당한 사람처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채 워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를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다.

주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이 곧 천국이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십시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